

한국의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치학적 인식

- 연구경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

진 덕 규*

- I. 문제의 제기
- II. 한국정치학의 전개와 청소년문제의 인식
- III.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인식 내용
- IV.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적 논리
- V.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과제

I. 문제의 제기

이 글은 한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관심과 그것의 정치학적 인식을 개관하려는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은 단순히 청소년문제 그 자체만을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치변동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격을 연관시켜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자연히 한국정치학의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 되고 만다.¹⁾

한국정치학은 학문적으로 아직도 이론적 독자성이나 체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기능주의적 주류정치학의 속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능주의 정치학을 주류적 성격으로 하고 그 밖에 최근에 들어와서 새롭게 비주류적 정치학의 한 영역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정치학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영역에서나 한국정치학의 학문적 한계는 바로 한국사회에 적실성이 강한 이론체계를 정립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와 함께 단지 외국의 주류 정치학이나 그밖의 다른 나라의 이론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치학의 이러한 추종적이고 모방적 현상은 자연히 앞선 나라의 정치학을 수용하는 것을 중요한 학문적 지향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 이화여대 정치학과교수

- 1) 한국의 정치학에서는 청소년문제만 별도로 취급하여 연구한 경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논의는 전반적인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인식과 지향성등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인것 같다. 다만 60~70년대를 넘어오면서 청소년세대의 사회적 참여문제가 대외함에 따라 주로 정치심리학적 차원에서 논의된 연구서가 있을 뿐이다. Michael Billing(1982), *Ideology and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pp. 167-74. 富田信男 등(1980), 정치심리학, 동경:北樹出版, 2장참조.

한국정치학의 이러한 상황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변동의 주체적 기능자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조차도 독자적인 연구논문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대신에 외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정치사회화의 연구만이 중요한 인식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정치학의 미정립은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정치학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아있 다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²⁾

한국의 청소년은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행사자이다. 정치적 변혁이 단순한 정부변동의 차원이 아니라 체제변혁의 의미까지 함유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청소년의 정치적 위치나 그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어느 의미에서는 정치변동의 기본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적변혁의 과정에서 청소년이 담당하였던 정치적 영향력은 해방이전은 그만 두고라도 해방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좌우익의 대결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승만 독재체제에 저항하였던 4월혁명, 70년대를 일관해온 반독재 투쟁과 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전 기간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의하여 이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청소년을 정치학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한국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념적으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는 물론

론이고 구체적인 정치참여 양식이라던가 그러한 참여가 가능하게 유도된 사회적 충격등에 대한 인식이 보다 의미있게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단지 정치사회화의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일관되어왔다. 청소년층이 정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가 정치적 성격에 대한 판단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분석등으로 정치사회화의 연구는 시종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사회화의 연구도 청소년의 정치적지향과 그것에 의한 한국정치사회의 변동에 대한 인식의 한 단서로 인용될 수도 있다. 그것에 의하여 한국사회의 권위구조의 양식을 추론할 수 있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정치참여의 한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예측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보조적인 인식의 단면임을 전제로 할 때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그만큼 요구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의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 논의하려는 것은 주로 다음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이다.³⁾

1. 한국 청소년의 정치학적 연구를 인식하기 위하여 현재 주류정치학이나 비주류정치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은 자연히 넓은 의미에서 정치 현실에서

2)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청소년의 개념은 연령이나 또는 학습단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참정권이 인정되기 이전의 청소년층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대학의 초학년까지의 젊은이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게 된다.

3) 청소년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만해도 약 48편의 논문이 조사가능한데 이들 논문들은 주로 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논문으로 간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석사학위논문과 관계없이 순수한 학문연구의 수준에서 출간된 연구도 없지 않다. 그러한 연구의 한 사례로서는 다음의 글을 들 수 있다. 어수영, "한국청소년의 민주적 태도형성에 관한 연구", 논총, 제52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7.

청소년의 영향에 대한 일반론적 견해에 대한 파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한국의 정치적 변동과 전개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양식과 그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을 개관함으로서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특징적 성격을 청소년문제와 연관시켜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종의 분석적 논의의 한 초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3.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학계에서 논의되어온 청소년과 정치와의 연계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의 내용—사실상 그러한 연구의 결실은 거의 찾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앞에서 말하였지만 주로 청소년이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정치학적 인식의 한 단면을 가름하기 위하여 이들 연구를 개관하려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것은 주로 한국정치와 청소년의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참여의 연관성을 총체적으로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화에 의하여 앞으로 한국청소년의 정치적 지향성을 예측하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정치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논의하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학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별도의 연구업적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치학의 연구와 연계시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는 사실이다.

II. 한국정치학의 전개와 청소년 문제의 인식

한국에서 정치학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다음 몇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그 방법론적 차이와 이념적 성격의 변화에 근거하여 논의하게 된다.⁴⁾

제1단계, 전통 정치학의 지속기(1945~1953년 전후)

제2단계, 정치학의 다원적 혼돈기(1953~1960년전후)

제3단계, 행동주의 정치학의 시기(1960~1970년대)

제4단계, 후기 행동주의 정치학의 대두기(1970년대 후반기~1980년대 중반기)

제5단계,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의 도전기(1980년대 후반기 이후)

먼저 제1단계를 살펴보면 해방과 함께 정치학은 이전의 일본 국법학적 연구와 성격에서 벗어나서 미국적 선회를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해방정국의 영향은 정치학의 이러한 선회를 막았으며 여전히 일본국법학의 범주에 머물게하였다. 특히 당시 좌우익간의 격심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은 우선 정치학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투쟁의 논리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그뒤 약 10년간 계속되었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등 외국군대의 참전 그리고 휴전에 이르는 기간동안 정치

4) 이러한 구분은 인식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한국정치학의 전개에 대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 김운태, "한국정치학및 행정학의 회고", 김운태 등, 한국정치행정의 체계, 박영사, 1982.

학은 이념적으로나 이론적 공백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백지대의 의미는 일정한 이념의 지향성을 고집하면서 그 이념을 위한 봉사로서 정치학적 기여가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로 지향하는 당시의 상황과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민족국가 형성의 이념적 지향과 같은 문제는 도외시되었으며 단지 한편의 체제적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정치학적 이론의 동원으로 치중되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은 일본의 국법학적 전통과 군국주의적 사고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성격까지 보여주었다.

제2단계는 시기적으로 휴전에서부터 4월혁명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미국의 정치학이 부분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전쟁기관과 그 이후 미국무성 초청이나 미네소타 교환계획등으로 한국의 정치학자들중 일부가 단기간 미국의 정치학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주로 일본정치학의 수용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대다수 정치학자들에게 미국의 정치학에 대한 접합은 정치학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그러다보니 이전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정치학의 요소도 그대로 잔존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현대정치학이 유입되기도 했다. 아마도 이시기에 가장 중요한 논의의 핵심은 라스키의 정치학적 사유의 하나로 다원주의 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국가를 한 사회의 여러 조직체 중의 하나로 파악하면서 단지 주권을 향유하고 있는 포괄적 결사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치학은 이전의 성격과 새로운 성격이 서로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필요에 의하여 정치학을 논의하는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아마도 현대 정치학의 본격적인 사유는, 1960년대 이후의 미국의 행동주의 정치학의 유입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정치상황은 4월혁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치적 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유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체제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를 정립하기 위한 일종의 근대적 시민사회의 대두로만 파악될 것이 아니라 기존적 권위체제의 동양적 전통성이 서구적 합리주의에 의한 붕괴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학도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당시 미국등지에 유학이나 단기 연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소수의 정치학교수들은 미국의 행동주의 정치학을 접할 수 있었다. 미국의 행동주의 정치학은 일정한 이념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미국사회 제일주의를 표방하였던 그 시대의 성격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기존 미국사회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입증하는 논리를 그 바탕에 깔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논리는 이른바 계량적 정치학 연구의 시도로서 모든 사실을 인과관계의 경험적 논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행동주의 정치학의 이러한 성격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것은 국가 법 제도등의 이전의 전통적 정치학을 배격하였으며 그대신에 투입 산출 정치체계 실증적 조사등의 용어가 풍미하였다. 그러나 행동주의 정치학에 압도되었던 70년대의 한국정치학은 단지 설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여론을 묻고 의견을 종합하는 논리로 일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었다. 즉 그것은 정치사회가 지향하여야할 이념형에 대해서도 가치로운 사회의 실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존재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존재하여야할 것에 대한 논

의는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1980년대 중반기까지는 후기 행동주의 정치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행동주의 정치학에 대한 자기 비판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자 한국 정치학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행동주의 정치학에서 결여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과 가치판단의 논리를 부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후기 행동주의 정치학은 일종의 행동주의 정치학자에 의한 자기 변용의 의미와 함께 자기 수정의 성격이 있었지만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는 이러한 성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보다는 단지 행동주의 정치학에 가치론적 지향성이 미약하다는 정도의 관심사가 제기될 정도였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치학계에서는 본격적인 후기 행동주의 정치학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자연히 한국의 정치학을 그만큼 혼돈으로 몰고 가는 여지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혼돈은 곧 이어 8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정치학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기 시작하였다. 그 바람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비주류 정치학의 정립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적 정치학의 수용이다.

198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주류정치학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대치되는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정치의 현실성에서 오는 현상도 없지 않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치

학의 학문적 결실이 미약한 것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동주의 정치학에서는 한국의 정치에 대한 그 어떤 정확한 설명도 제시해주지 못했으며 특히 미래의 지향적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설정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정치권력에 연관되어 그것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시종되는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정치권력구조의 권위주의적 과행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경제적 토대와 연관시키면서 계급적 인식을 바탕에 깔려는 논의가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⁵⁾

한국의 현대 정치학이 이처럼 몇가지 단계로 발전하였음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한 인식, 특히 정치학적 논의도 이러한 단계적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경향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한국 정치학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는 앞서서도 지적하였지만 행동주의 정치학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도입되고 난뒤부터였다. 행동주의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체계이론은 그 투입과정에서 정치사회화를 연구의 중요내용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를 정치사회화라는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도에서 실증적으로 계량분석의 의도를 쉽사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연구가 다수 이루어 질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의 성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단계의 구분이 가능해 진다.

전기,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시기

5) 비주류 마르크스주의적 정치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논의로는 다음 책을 참고 할 것, 진덕규(1989), 현대정치사회학이론, 三英社, 한국정치연구회 지음(1989), 한국정치론, 백산서당.

(1970년대)

후기,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시기
(1980년대 중반기까지)

위에서 설정한 것처럼 두단계로 나누게 된 것은 단순한 정치사회화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의 문제를 기존의 정치체제로 수용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행해졌던 일련의 연구들이 1980년대 중반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이러한 연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적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체제내적 통합을 고려하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 에서부터 시도되었던 이른바 유신체제는 한국사회의 의제적 사회통합을 강요하였다. 시민운동은 모두 반체제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로 극단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정치학이나 그밖의 기존의 사회과학은 사유의 폭을 극단적으로 제약받아야 했다. 기존의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로 청소년의 문제를 인식하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치적 지향성을 기존체제 수용으로 유도하게 하는 논의가 지배적인 것으로 들어나게 되었다.

둘째,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기존체제에 저항하였던 이른바 반체제 세력의 중요한 동원 자원이 대학생이었고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민주화 운동의 기수였다. 그들은 이전처럼 기성의 직업적 정치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았고 지식체제도 기존의 이론체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했다. 단지 그들 스스로 민주화를 위한 미래지향의 가치를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반정치적 도전을 만들어가야 했으며 투쟁의

전략도 설정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당연히 마르크스주의적 인식체계가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학적 연구의 관심, 특히 기존체제적 위치에서는 이들 청소년을 일정한 가치에 입각한 사회화를 이룩하여 정치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정치교육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정치교육은 정치체제의 의도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청소년의 사회화를 의미하였다. 특히 이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전후 독일에서 논의되었던 청소년의 정치교육을 수용하려는 지배세력의 의도에 크게 영향받았다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정치적 위치와 영향을 증시하였던 것은 비단 지배세력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른바 반체제적 도전세력에 의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당연히 정치학의 이론적 연구에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경향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정치적재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그러한 시도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주로 민주화운동의 추진 세력에 의하여 출간되었던 청소년을 위한 도서는 물론이고 그들을 위한 정치적 행동양식 등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주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은 이제 정부나 지배세력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화를 시도하였던 변혁세력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구되었으며 그결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이 중요한 관심의 한 영역으로 서서히 자리잡게 되었다.

결국 한국정치학의 발전이 미국의 정치학을 바탕으로 하여 그 영향권에서 맴돌고 있을 때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도 초기에는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정치상황 자체의 변화가 더 이상 미국의 주류정치학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을 촉출시킴으로서 비주류 정치학이 이제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었고 이것과 함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도 단순히 정치사회화에 대한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정치변혁의 중요한 인자로서 파악되는 정치교육적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이는 바로 정치권력을 장악한 지배세력이나 그것에 도전하려는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모두 청소년의 정치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에서 연유되었기 때문이다.

III.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화의 인식 내용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치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지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1.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관한 분석

주로 청소년층의 정치적 의식을 실증적인 연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실은 다음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은 부모의 의식을 그대로 전승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의식은 구체적이기 보다는 단편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정치의식의 형성은 고등학교시기에 이루어지고 한번 그렇게 이루어진 정치의식은 고정적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청소년의 정치의식은 사회의 개방적 현실과 발맞추어 점점 민주화해 올라가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정치적 행위는 정치적 의식과 연관성이 미약하며 주로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로 전이되고 있다.

2. 청소년의 정치의식 형성에 대한 분석

청소년기의 정치의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정치에 대한 정보의 접촉빈도와 그러한 빈도가 가져다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정보의 접근은 친구들과 같은 동배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정치적정보에 대한 접근원은 점차 매스미디어에 의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 셋째, 학교교육이나 부모에 의한 청소년의 정치적 정보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의 정치적 정보는 구체적인 성격이 미약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인식이 체계적인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정치적 정보의 미체계화

6) 최근에 연구된 정치사회화에 대한 한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박진영,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1990. 또한 다음의 저서는 한국의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황정규, 안귀덕, 이종각, 이장호 공저,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다음의 글에서 읽을 수 있다. David D. sears(1975), "Political Socialization", Micropolitical Theory, ed., by F.J.Greenstein.

는 결국 청소년의 정치의식 형성에 일관성을 결여하게 한다.

3. 청소년의 정치적 행위와 규범성에 대한 분석

청소년의 정치적 행위의 구체적인 전개가 어떠한가. 그러한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행해졌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행위양식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어진 사실은 대부분의 청소년의 정치적 행위는 구체적인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관념적이며 맹목적인 정도로 당위적 속성을 주조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의 정치적 행위는 주로 당위성에 치중하기 때문에 상황적 조건이나 상대적 의미의 정치적 반영은 고려되는 경우가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치적 행위는 충동적 즉자적 감성적 속성을 그 내면에 간직하게 되며 이러한 요소는 정치적 행위에 과격한 양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성격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청소년의 미래지향성은 주로 정치적 가치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치체제와 청소년의 의식과의 일치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미래지향적 가치관의 실현에는 낙관적인 긍정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정치적 발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기

대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 가치관에서도 그들이 지지하고 선호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의 정확도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단지 일종의 관념적 인식의 한 성격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정치에 대한 사회화 연구의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한국정치의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정치적 안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는 무엇보다 정치사회화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학교교육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IV.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적 논리

이미 앞서서도 말했지만 70년대 중반기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정치교육에 대한 주장은 정치학의 중요한 논의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당시 이러한 논의는 일종의 국가 정책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지적인 국가정책의 의미는 한국정치에서 청소년층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 청소년층은 사실상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변혁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비록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그러한 변혁을 가져왔지만 이들도 엄격히 따진다면 청소년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층이 한국정치에 미친 변혁의 중요한 사실들은 비단 4월혁명에서만이 아니라 그 뒤 계속하여 그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와 계속된 정치활동을 통하여 한

국정치의 변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지난 6월항쟁에서 보여주었던 청소년층의 정치참여는 이들이 사실상 한국정치의 체제변동의 활동인자임을 실증하였다.

정치변동에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정부나 지배세력의 관점에서는 이들을 정치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모색에 치중하게 되었다. 그러한 모색은 제도적으로 기존의 각종 학생단체를 학도호국단의 편제화로 조정하기도 했으며 학교교육에서 체제지지적 성격을 강화하는 교과내용을 함유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청소년층을 기존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시도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학적 인식의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른바 정치교육의 영역이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⁷⁾

정치교육은 주로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청소년의 정치적 지향성에 대한 교육의 강화라는 의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적 바탕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정치교육의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사회의 체제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의 가치를 시민사회에 주지하는 정치교육적 모색은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정치교육의 대상은 단순히 청소년층만이 아니라 전체시민들이어야 하고 다만 청소년층은 이러한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정치교육의 목적은 특정의 정당이나 집단을 지지하거나 특정정치인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체제적 유지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정치교육의 내용은 단순히 자기 사회의 역사적 가치를 과장적으로 미화하거나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알게 하고 현실적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미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적 책임과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정치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에서는 물론이고 사회교육의 차원에서도 행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그것은 일정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성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여야 할 사실은 이러한 내용의 정치교육은 그 당시 주로 독일의 정치교육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사회에 모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있었다. 즉 독일은 2차대전이후 이전의 나치즘의 악몽에서 벗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위협을 극복하고 독일인들의 시민의식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교육이 실시되었다. 즉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속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와 인종주의의 편견을 들어내고 독일인들에게 시민

7) 이러한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저서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정치문화연구원편, 청소년과 내일의 한국, 1985. 이책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한국의 근대정치사의 민족주의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저술되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용하게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게 의식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에서 행해졌던 독일의 정치교육은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박정희 체제의 말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정치교육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정치정향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으며 그러한 필요성은 쉽사리 독일의 정치교육을 인식의 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적 의미와 내용을 그 바탕에 깔면서 당시 정부에 의하여 행해졌던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첫째, 학교 공교육에서 정치교육은 한국사와 국민윤리등의 정책과목의 개설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과목은 한국사에서 국난극복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민족적 일체감을 강하게 인식시키게하려는 것이었으며 국민윤리는 기존체제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특정 정치지도자에 대한 미화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둘째, 정치교육의 한 성격으로 학생들의 공조직체제를 편제화하였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켰으며 그 대신에 학도호국단과 같은 일정한 제도를 설정하여 이것에 의하여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행위를 제약하려 하였다. 셋째, 각종의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이것에 의한 사회분위기를 정치체제의 지지적 경향으로 유도하려 하였다. 기존의 새마을 교육등을 강화하는 것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정치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교과과정의 개설과 연구조직체의 기능적 활성화에 치중하였다.

이처럼 정치교육적 조치는 당시 정치학적 측

면에서 그러한 조직적 활동에 의하여 최소한 다음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첫째, 정치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청소년층의 신념체계화, 둘째, 청소년의 급진적 정치변동의 지향성에 대한 제약, 셋째, 보수적 민족의식과 국가관의 수용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먼저 청소년의 신념체계화를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소년의 신념체계화는 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성격을 보여주게 된다. 진보적인 신념체계는 정치 변동의 과정에서나 민족과제의 현실성에서는 자연히 급진적 정치변혁운동으로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청소년층이 보여주었던 정치적 참여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진보적 신념체제를 상대적으로 균형성의 유지와 객관적인 상황인식으로의 유도를 위해서 현실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참여적이고 건설적인 지향성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당시 정치교육은 조국근대화의 급속한 실현을 현실에 대한 인식의 준거로 제시하였다. 조국근대화를 이룩하는 것이 당면의 국가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청소년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논리화되었다.

정치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급진적 정치지향성에 대한 제약은, 당시 청소년층의 지적 성격이나 정치적 비판의식의 이론적 기반이 마르크스주의라는 점에서 이를 비판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교양과목은 물론이고 중등학교에서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이것에 의하여 논의되었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를 반식대적 사상체제로 비판하였다. 마르크스가 살았

던 시대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가 예언하였던 중요한 논리는 100여년전의 서구사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마르크스주의는 북한사회에서 김일성의 개인적 신화로 이용된 논리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김일성 개인숭배는 이른바 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마르크스주의를 원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체제면에서 전체주의적 계급독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시민사회적인 시대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로의 지향성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에게 마르크스주의적 급진성을 제약하려 하였다. 셋째로 중요하게 다루었던 보수적 국가관의 강조는 우선 한국사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한국민족사를 국난극복의 민족적 투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의 발전이 이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현대사에서 해방이후 분단과 전쟁등의 일련의 전개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과 민족적 침탈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기여하려는 의식 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정치교육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건전한 시민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의지와 책임의식 그리고 헌신감을 주지 해야했던 정치교육의 근본의도보다는 자연히 기존정권의 정당성과 정치지도자의 지지로 이어지게 하려는 성격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났

다. 즉 그것은 기존권력구조와 지배세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의 성격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과 지식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반발은 당시 정치적으로 반민주주의적 억압체제의 형성과 권위주의적 통치양식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일종의 국민적 저항으로 전개 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특히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당시 정치교육은 그 내용면에서 한계와 현장에서 교육담당자의 능력과 헌신에서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적지않는 부작용을 가져오고말았다.⁸⁾

이러한 한계와 부작용중에서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지적 체계를 보편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가관의 확립을 위한 논리는 오히려 기존체제의 정당성 시비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인민군의 남침에 대한 주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한 북침설까지 나오게 하는 실로 정치교육의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어느 의미에서 당시 정치교육의 실패는 그 뒤 한국의 정치변동에서 급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주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을 등가치로 균형잡게하는 결과를 조성하게 되었다.

V.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치학적 과제

한국사회는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청소년에 의한 정치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이

8) 특히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적 인식은 기존체제적 인식에서만 논의된 것이 아니라 변혁적 정치운동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에서도 논의되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다. 중요한 정치적 변혁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들이 보여준 정치적 행동에 의하여 행해졌다.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활동영역이 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정치적 영역은 예외적일 정도로 개방되어있다.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활동이 보장되고 지원되고 지향되는 영역은 사실상 학교 제도로 인하여 차단되고 있다. 이른바 입시교육의 중점적인 현상이 이들의 일상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참여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⁹⁾

중등학교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의식과 삶의 가치를 심어주고 그것에 의한 생활의 가능성을 예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는 이들의 이러한 참여의 길을 입시제도에 의하여 봉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시제도는 엄격히 말한다면 현재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전과 지향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약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구조화를 파행화시켰다.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우수자나 또는 이른바 학교생활에서 모범학생들에게는 일반 사회문화에 대한 참여나 접촉기회가 사실상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위치에 있는 어느 의미에서는 기존의 인식체계로서는 대학입시에 적실성을 결여한 학생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실제 이들에 의하여 대중문화적 주조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고 말았다. 대중문화의 창조자들이 현실적 상황에 적실성을 결여한 어느 의미에서는 기존의 가치체계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

는 위치에 놓인 젊은 청소년에게 하나의 탈출구처럼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입시위주의 학교제도는 젊은 청소년에게 학문의 폭을 넓히고 인생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고전을 읽는 다거나 고급 예술에 심취하면 여지없이 입시에 탈락자가 되는 현실은 결국 성적우수자나 이른바 대학입학생들의 대다수를 한낱 교과서 학습자로 한정되게 하였다. 이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절에 필요한 무수한 요소들을 포기한 댓가로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학한 청소년들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에 익혀야 할 중요한 경험들을 대학에서 익힐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가장 구체적인 한 표현이 정치활동에 참여이다.

대학에서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성격을 가지게 된다. 첫째, 이들의 정치적인식은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교과서에서 익힌 중요한 내용들 예를들면 한국정치체제의 정당성과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적 이해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가치적 수용등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활에서 현실을 접하게 된다. 대학에서 이들이 접하는 현실은 관념과는 다른 현실세계가 놓여 있음을 절감하게 되고 그결과 이들은 깊은 좌절과 함께 도전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둘째, 청소년들은 대학에서 연구하게되는 학문적 깊이나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학습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심한 차이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이들에게 대학의 의미를 저평가하게 된다. 즉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이들이 배

9) Ted Tapper and Brian Salter(1978), *Education and the Political Order*. London: Macmillan, pp.24-26.

우게 되는 교양강의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보다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학습량도 많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양강의만이 아니라 전공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큰 차이가 없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다시말하면 관념과 규범적 현실인식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이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현실과 접합하게 하여 그 문제점들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연구의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게 된다. 셋째, 한국의 대학사회는 식민지 시대부터 일종의 선진적 지식인의 위치를 누려왔다. 사회문제에 대한 지식인의 발언과 영향력을 대학생들이 담당해온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자연히 대학인에게 일종의 지적 헌신감과 사회적 책임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최근 4월혁명이후 대학 사회의 이러한 지적 위치는 보다 강화되고 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헌신감은 자연히 대학사회를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대학사회는 정치변동의 주요한 인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인의 정치참여는 당위적 가치로 정착되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가치는 기존 정치의 비합리적인 성격과 권위주의적 요소로 인하여 점점 현실적 지향성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정치사회에서의 위치와 그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속에 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실제 정치변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의 학습과정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더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정치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에 의한 청소년의 반응을 조사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반적으로 짐작되고 있는 사실 이상의 것을 얻기는 어렵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중요한 인식과 그 대응양식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교육만해도 이는 결국 청소년의 정치행위에 대한 일정한 의도적 도출의 의미가 강할뿐 아니라 나아가서 의도적 정치사회화의 성격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교육은 그것의 기본적인 의도나 내용에서 독일의 정치교육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정치교육은 청소년의 정치적 지향성과 참여양상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사유는 최소한 다음 몇가지를 그 기반적 가치로 전제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사유는 한국정치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와 범주에서 인식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는 사전에 정립된 일정한 가치지향을 유도하고 사회화하기 보다는 그러한 가치지향의 기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

셋째, 한국 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은 지나치게 현실문제에 대응하는 양식이나 일종의 정책적 대안의 추출에 치중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넷째, 한국청소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미래지향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청소년에게 추구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성격과 국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인식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서 설정한 이러한 전제위에서 청소년문제를 정치학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현실성이 있는 그리고 가치적인 청소년의 지향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이점에서 한국정치학의 연구는 정치변동이나 정치사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존재와 의미 그 영향력을 보다 치밀하게 논의하고 인식하는 학문적 지향이 일어나야 하고 그것은 단순히 외국의 인식논리를 변안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청소년문제를 정치학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변혁의 미래지향적 가치체계에 대한 설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바로 한국정치의 미래에 대한 조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 고 문 헌

1. 김운태(1982)등, 한국정치행정의 체계, 박영사.

2. 안청시 등(1986), 현대한국정치론, 법문사.
3. 진덕규(1989), 현대정치사회학이론, 삼영사.
4. 한국정치연구회(1989), 한국정치론, 배산서당.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5), 청소년과 내일의 한국.
6. 황정규등(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 박진영(1990),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대대학원.
8. 富山信男(1980), 政治心理學, 北樹出版.
9. Anthony Oberschall(1973),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 Prentice.
10. Fred I. Greenstein(1975), *Micropolitical Theory*, Prentice.
11. Michael Billing(1982), *Ideology and Social Psychology*, Blackwell.
12. Ted Tapper and Brian Salter(1978), *Education and the Political Order*, Macmillan.